

KC Newsletter

<http://news.kc-cottrell.com>

Korean/English

Contents

- 창 간 사
- KC Network
- 고객사 동향
- 경 제 동 향
- 기 타 소 식

※금월 추천 보고서
정권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 창 간 사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에 즈음하여....

요즈음은 전 세계적으로 “Code Green”의 열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이라는 구호는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의 기본 전략을 떠나서, 온 지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경제의 전반적 패러다임을 바꾸어 갈 커다란 추세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KC코트렐과 관계사들(KC네트워크)은 모두 지구 “녹색 산업”의 일익을 담당해 오고있으며,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모든 관계사가 “최고의 환경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자기 계발과 성장을 이룩하고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발전에 기여 한다”는 공통된 미션을 가지고 한 걸음씩 성장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녹색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선두 위치를 확보하고,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KC네트워크의 긴밀하게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라인 구축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 해에는 KC코트렐은 사명 변경과 함께 전 관계사의 CI변경 작업을 마쳤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계사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KC네트워크 임직원 모두가 필요성을 느껴오던 KC Newsletter를 발행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C뉴스레터는 KC네트워크의 소식과 정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매체로서, 관계사의 최근 소식은 물론, 고객 및 지역별, 산업별 경제동향을 공유하고, 아울러 KC코트렐 관계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KC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로 탄생하는 KC뉴스레터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꾸준히 지속되어, 앞으로도 KC 커뮤니티의 의사소통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KC뉴스레터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가을 대표이사 이 태 영



이태영 대표이사

● 편집팀 인사

KC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KC Newsletter 창간호 발행을 맞이하여 KC 뉴스레터 편집팀이 인사를 올립니다. 사명을 ‘KC코트렐’로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짐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새로운 CI에 맞추어 KC의 전 네트워크의 사명, 광고 그리고 우리의 명함까지도 새롭게 단장하여 정착해온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C 네트워크가 보다 빠르고 긴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본 지를 통해 여러분의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KC의 고객, 국내외 경제, 시사 등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달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며, 좋은 정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팀 올림

KC Newsletter

<http://news.kc-cottrell.com>

Korean/English

Contents

- ▣ 창 간 사
- ▣ KC Network
- ▣ 고객사 동향
- ▣ 경 제 동 향
- ▣ 기 타 소 식

※금월 추천 보고서
정권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 관계사 소식

KC Cottrell(China)

“KC Cottrell(China) 사옥 이전”



〈 KC Cottrell(China) 외경, 새로운 CI가 적용된 입구 〉

2009년 7월 2일 중국 장춘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법인인 KC China가 사옥을 이전하였습니다.
옥상광고물은 KC에서 시안을 협조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는 클레스트라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No. 9576, Donghuancheng Road, Changchun City, Jilin Province, P.R. China

“제5회 동북아 투자무역 박람회 참가”



〈제5회 중국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



〈KC네트워크 홍보부스〉

2009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중국 길림성 장춘시 장춘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제 5회 중국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 KC코트렐, KC China가 참가하였습니다.

이 박람회는 중국 중앙정부와 길림성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한 행사로서 8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C코트렐이 11개 선정업체 중 가장 큰 메인 부스로 제작되어 KC코트렐의 지원 하에 KC코트렐, KC China, KC삼양정수를 공동 홍보를 하였습니다.

KC Cottrell China WuChunling(cckcwuchunling@163.com)
KC Cottrell 기획팀 여주희 (juhee@kc-cottrell.com)

KC Newsletter

<http://news.kc-cottrell.com>

Korean/English

Contents

- ▣ 창 간 사
- ▣ KC Network
- ▣ 고객사 동향
- ▣ 경 제 동 향
- ▣ 기 타 소 식

※금월 추천 보고서
정권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 고객사 동향

발전민주

“한전, 이젠 'KEPCO'로 불러주세요!”

한국전력공사가 다음 달부터 회사 명칭을 영문 약자 표기인 'KEPCO'로 일원화한다. 한국전력이란 이름이 등장한 지 4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6일 한전에 따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해외 진출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영문식 표기인 'KEPCO'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민영화 이후 KT로 일원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사 전문보기〉

“현대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서 발전 프로젝트 계약 ”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에서 4300만달러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MEB(PT Mitra Energi Batam)사가 발주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보기〉

“두산 중공업, 3000억원 규모 사우디 발전설비 수주 ”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000억원 규모의 발전설비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마라픽 화력발전소 5.6호기에 공급될 보일러(250MW급) 2기와 증기터빈 2기 등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마라픽 화력발전소의 설계 및 시공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두산중공업은 한화건설에 발전 설비를 납품하게 된다

〈기사 전문보기〉

제 철

“포스코, 포스하이메탈<POS-HiMetal> 9월 1일 출범 ”

포스코는 1일 전략제품인 고망간강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FeMn(페로망간) 생산법인인 “포스하이메탈(POS-HiMetal)” 출범식을 가졌다. 포스하이메탈은 광양제철소 내 신후판공장 인근에 고순도 페로망간 7만 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2010년 4월 착공해 2011년 9월 준공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고순도 페로망간은 전량 광양제철소 자동차용 고망간강 제품생산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사 전문보기〉



‘세계 첫 “녹색제철소” 시동 ’

현대제철, 2일 일관제철소 초도 원료 입하식 밀폐형 친환경 원료처리시스템 본격 가동
정 회장 “세계 10위 철강사 도약” 포부

2010년 1월 쇳물 생산을 목표로 막바지 건설이 한창인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에 제철 원료가 첫 입하되면서 녹색제철소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현대제철은 2일 당진 일관제철소에서 주제 카를로스 마틴즈(José Carlos Martins) 발리(Vale)사 사장,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 등 국내외 인사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관제철소 초도 원료 입하식’을 갖고 첫 제철원료의 입하와 밀폐형 원료처리 시스템을 가동했다.

〈기사 전문보기〉

KC Newsletter

<http://news.kc-cottrell.com>

Korean/English

Contents

- ▣ 창 간 사
- ▣ KC Network
- ▣ 고객사 동향
- ▣ 경 제 동 향
- ▣ 기 타 소 식

※ 금월 추천 보고서
정권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 경제동향

자금시장 정보

“금리상승세 조금 더 이어질 듯”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2.0%)과 “시장금리가 다소 앞서 나갔다”는 한은 총재 발언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며 금리반락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선된 경기 시각과 기준금리 인상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금리의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유입된 저가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조기시행 우려와 외인의 국채선물 매도 영향으로 금리는 재차 상승반전 되었다. 미국 FOMC에서의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출구전략 시행을 시사함에 따라 금리 상승압력이 가중되었다.

〈기사 전문보기〉



주식시장 정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장세로 전환, 글로벌 경제의 회복 전망”

현재 주식시장은 2009년 3월 3일 KOSPI지수 1,025.57을 시작으로, 2009년 08월 28일 현재 1,607.9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각 증권사에서는 단기간 급격한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 및 출구전략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등을 우려하면서도 9월 증시에 관해 추가반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사 전문보기〉



환율시장 정보

“최근 달러화 상승 재료는 ▶중국 증시 급락 ▶국제유가 상승 ▶외환당국 개입” “달러화 하락 재료는 ▶글로벌달러 하락 ▶국내 경제펀더멘털 개선”

최근 달러-원 환율이 1,250원선 주변에서 장중 등락을 반복하며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데는 상승과 하락재료들이 극명하게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기업들도 서울환시에서 달러를 거둬 들여야 할지 아니면 내다 팔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달러화의 향방은 더욱 혼미해지는 양상이다.

〈기사 전문보기〉

원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열연] 포스코 SSC 열연재고 “7개월 만에 첫 증가”, 열연유통 價 “악세전환”
[냉연] 냉연업계 가격인상 불가피, 포스코 할인율축소 검토
형강류 시장가격 “안정”
포스코 STS 가격인상과 향후 전망
니켈 재고, 사상 최고치... 재고 증가에서 가격 견조

〈기사 전문보기〉

KC Newsletter

<http://news.kc-cottrell.com>

Korean/English

Contents

- ▣ 창 간 사
- ▣ KC Network
- ▣ 고객사 동향
- ▣ 경 제 동 향
- ▣ 기 타 소 식

※금월 추천 보고서
정권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 막걸리 테이스팅 전문가 버전

이번 호에는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전통주 막걸리 테이스팅에 관한 기사를 다뤄 보겠습니다.

1. 단 맛

술의 단맛을 평가하는 기준은 상대 당도다. 흔히 절대 당도 개념의 브릭스 8이라고 정의하는 듯 하나 실제로 이것을 기준으로 감미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제로 이것을 기준으로 감미하는 곳도 없다. 왜냐하면 술의 감미도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입맛에 느껴지는 감미도가 너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맛, 신 맛 또는 쓴 맛, 그리고 매운 맛, 심지어는 수의 온도에 따라서도 느껴지는 감미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평가적인 감미도 평가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막걸리도 와인 소믈리에와 같은 고 감별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맛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막걸리를 알기 위해서는 고도의 미각적 훈련이 필요하다.



2. 신 맛

막걸리의 신맛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에서 느껴지는 신 맛과 비슷한 맛이다. 그렇기에 확연히 느껴지는 신 맛이 아니고 새콤 달콤 한 맛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 맛은 적정 수준에서 느껴지는 첫 맛은 신맛이 아니고 상큼한 향의 느낌이다. 입안을 통과하며 새콤함이 느껴진 뒤 목 넘김 후에는 시원한 향으로 남는다.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보면 적당할 것이다.

이러한 신 맛은 양조과정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인공적으로 첨가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현미 막걸리의 경우에 첨가재료 젖산과 구연산을 사용하는 것 처럼 표기하였지만 실제로는 양조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정하기 위한 예비 항목으로 적어 놓은 것이지만 실제로 감미하지는 않는다.

양조 공법으로는 이러한 신 맛의 조절이 가능한데, 양조 과정에서 누룩의 함량을 조절 함으로 신 맛의 조절이 가능하다. 누룩이 적을 수록 신 맛의 조절이 용이한데 누룩의 양이 적으면 술을 빚기가 어렵다.



3. 매운 맛, 후레쉬한 맛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화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전분 → 당 → 알코올 + 이산화탄소(탄산)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탄산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술에 녹아 있게 되는 것이다. 고도수 술들은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완전히 끝난 후 후숙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기에 자연 증발이 발생하여 탄산의 함량이 적으나 저도수 술들은 양조 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로 술을 완성하여 음용하기에 탄산의 함량이 높다.

〈기사 전문보기〉